



해외 동향

□ 보잉 대신 에어버스 선택했다

- 보잉 737MAX 기재 사고 여파, 美 항공사 이례적으로 에어버스 주문
 - 유나이티드 항공, B757 대체 기종으로 A321XLR 50대 주문(약 8조 3,440억 원 추정)
 - 아메리칸항공, 6월 파리에어쇼에서 B757 대체 기종으로 A321XLR 50대 주문
- 현재 보잉은 에어버스 A321XLR과 경쟁할 중형급 항공기 부재
 - 보잉 중형급 항공기 중 B757 단종, B767은 화물기·군용기만 생산
- 보잉 B767 대체 항공기 제작까지 늦어지면 에어버스에 중형급 항공기 시장을 내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큼



에어버스 A321XLR

- XLR(Xtra Long Range)는 ‘초장거리’ 의미
- 항속거리 : 약8,704km(단일통로 세계 최장)
- 좌석수 : 180~220석(2클래스)

□ 엠브리에르-보잉, 다목적 군용 수송기 국제시장 마케팅 본격화

- 지난 해 말, 보잉이 엠브리에르의 상업용 항공기 부문 매입 조건으로 합작회사 설립(자본금 6,312억 원)
- 엠브리에르가 자체 개발한 다목적 군용 수송기 ‘KC-390’의 이름을 ‘C-390 밀레니엄’으로 바꿈
- 지난 8월 포르투갈, C-390 밀레니엄 5대 구매 계획 밝힘(약 1조 1천억 원)
- 그 외 스웨덴, 독일, 칠레 등 세계 10여개국과 구매 협상 진행 중



C-390 밀레니엄

- 길이 : 33.43m, • 높이 : 11.43m,
- 최대 적재능력 : 26t • 폭 33.94m,
- 브라질 공군, C-130 허큘리스 수송기 대체 위해 C-390 밀레니엄 28대 도입 계획



국내 동향

□ 한화시스템, 에어택시 선도기업에 298억 원 투자

- 美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(CFIUS), 에어택시 선도기업 오버에어에 대한 한화시스템의 투자계약을 최종 승인(한화 약 298억 원 규모)
- 이번 투자 승인으로 오버에어는 개인항공기(PAV·Personal Air Vehicle) 버터플라이* 개발 본격화
- 한화시스템, 오버에어와 함께 미 연방항공청(FAA)의 형식 인증 승인을 목표로 버터플라이 기체를 민수용 교통체계에 적합하도록 개발 박차



오버에어 버터플라이

- 전기식 수직이착륙 타입(eVTOL)의 개인항공기
- 파일럿 1명 포함 5명 탑승 가능
- 최고속도 : 240km/h
- 운행거리 : 100km 이상
- 저소음 고효율의 최적속도 로터 기술 적용
- 도심용 모빌리티에 최적화된 기체로 평가

□ 항공 MRO 절반 이상 해외 뚫... 내수로 전환해야

- 우리나라 항공 MRO 시장 규모는 약 2조 3천억 원. 이 중 약 1조 2천억 원을 해외MRO 회사로 지출
- 항공 MRO 분야(기체 중정비, 엔진·부품 정비, 운항 정비 부문) 중 엔진·부품 정비 부문의 해외 의존도 60%로 제일 높음
 - 엔진·부품 부문 MRO 규모는 1조 7천 억 원, 이 중 1조 원가량을 해외 업체가 담당
- 지난해 6월 국내 최초의 항공 MRO 전문업체 한국항공서비스(KAEMS)출범
- 지난 9월 FAA로부터 737 항공기 정비능력 인정 받은 후 정비 물량 확대
 - 이스타항공으로부터 11월, 12월 정비 물량 잇따라 수주
- KAEMS는 현재 보잉 737, 에어버스 320 등 소형기 중정비와 외부재도장 가능. 중장기적으로는 광동체(와이드 바디) 중정비와 민수 엔진 정비 능력까지 확대해 국내 부족한 정비수요 해소할 것



관내 동향

□ 사천시 ‘항공우주산업물류센터’ 준공식 개최

- 사천시, 종포일반산업단지에 중소·중견 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‘항공우주산업물류센터’ 준공
- 대지면적 1만3563m², 지상 1,2층 연면적 4931m² 규모로 완공
- 국비 34억 원과 도비 20억 원, 시비 67억 원 등 121억 원을 들여 건립
- 항공 원자재 전용 창고 기능과 함께 원자재를 원하는 규격으로 절단하여 공급하는 국내 최초 항공(제조)산업분야 전용 공동원자재공급기지로서 역할
- 물류단지 본격 가동되면 기업들의 개별 원자재 구매에 따른 번거로움이 감소하고 원자재 대량 구매에 따른 원가절감 효과도 기대

□ 해병대 항공대대 창설에 호재 맞은 KAI

- 지난 11월, 해병대, KAI 자체 개발 상륙기동헬기 ‘마린온(MARINEON)’을 주축으로 하는 항공대대 창설
- 1항공대대(기존 1·2사단 항공대 해체 뒤 새로 편성)는 마린온* 18대 가량 배치. 2023년까지 28대 도입 예정
 - * 마린온 : 2006.6.부터 6년간 1조3천억 원 투입하여 개발한 다목적 헬기 수리온을 개조해 만든 파생헬기 일종
- 작년 7월 프랑스 부품제조업체가 공급한 로터마스트 부품 결함으로 발생한 마린온 추락사고 이후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작성일	2019. 12. 10.(화)	보고일	2019. 12. 10.(화)
부서명	우주항공국 우주항공과	담당자	(055-831-3470)